

돼지 공동출하로 회원 이익을 꾀하는 인 / 천 / 지 / 부

취재 : 추 용 진 기자

본회는 양돈인들을 위한 비영리 생산자 단체로 양돈산업의 발전과 양돈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돈인들에 의해 설립된 협회는 각종 양돈정책 개발과 연구, 조사, 기술·정보제공, 유통구조 개선, 종돈능력검정을 통한 종돈개량, 해외 협력사업, 돼지고기 소비촉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양돈농가의 숙원사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앙회를 위시하여 9개 도협의회와 87개 시·군지부(회)가 양돈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부(회)는 회원들의 단합과 상호 기술교류 및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들 지부(회)중 새마을 금고를 통해 돼지 공동출하와 사료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지부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인천지부를 찾아보았다.

새마을 금고 운영으로 경제사업 펼쳐

인천지부는 1974년 권승숙 초대회장을 비롯한 22명이 인천시 양돈협회로 창립하였다가 1979년 본회 인천지부로 가입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돼지 계통출하를 실시하고 인천시 양돈협회 마을금고를 창립하였다. 인천지부는 새마을 금고를 운영하여 돼지 계통출하와 사료공동구매 등의 경제사업을 하고 있다.

인천지부의 회원들은 인천, 경기 일원에서 양돈업을 하는 자로 구성되었으나 인천시가 대도시화됨에 따라 양돈을 포기하거나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88명의 회원중 인천에서 양돈업을 하는 회원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나머지 회원들은 김포, 강화, 오산 및 충청도 일원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부는 회원 모두가 새마을 금고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이사 13명, 감사 3명과 전무, 출하관계 담당 출장소장, 출하관리자 1명, 기사 2명, 금고담당 여직원 1명과 회원관리 여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지부 장무성 전무는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사업을 하여 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협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 등의 특별한 법인을 설립하여 경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천지부는 지부활성화를 위해 1980년에 새마



▲정진섭 지부장이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인천지부는 회원들의 양돈 경영을 돕고자 양돈경영안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을 금고를 설립하고 정육 판매점 사업, 사료공동구매 그리고 생산자 계통출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료 공동구매는 매월 1,000톤 이상 거래하고 있으며, 돼지 계통출하는 매월 5,000~6,000두를 하고 있다.

계통 출하된 돼지의 철저한 관리

돼지 계통출하는 출하 일주일 전에 회원들로부터 출하신청을 받고 돼지 수송차량을 농장으로 보내어 도축장에 출하한 후 지부 직원의 관리하에 도축하고 있다.

돼지 출하금액은 새마을 금고의 개인별 통장에 자동적으로 입금되고 회원이 필요하면 타은행으로 송금해 주고 있다. 돼지 수송차량은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용 차량보다 수송료를 적게 받아 영업용 돼지 수송차량들이 답합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유유탉 삼성식품 출장소장과 관리자 1명이 돼지가 도축되는 삼성식품 도매시장에 상주하여 회원들이 계통 출하한 돼지를 감독·관리하고 있었다.

새마을 금고에서는 회원들의 계통출하 대금이 입금되고 도축수수료(700원)와 회비를 제하고 난 금액을 적립하거나 회원이 원하는 은행에 송금시켜주고 있다. 또한 출하대금을 예탁할 경우에는

연 1%의 높은 수신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다.

이처럼 인천지부는 새마을 금고를 통해 지부 사업을 펼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을 위한 여수신 등의 편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지부의 새마을 금고는 지난 88년에 새마을 금고 신용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26억원의 자산이 형성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2억의 당기 순이익을 내어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회원들에게 배당했다.

지난 90년에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매입하여 양돈회관을 개관하고 3층은 사무실, 4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회원들에게 직접 도움되도록 노력

인천지부는 회원들의 양돈기술 습득과 경영관리를 위하여 양돈 경영안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년 하계 수련대회, 회원 단합대회, 야유회 등을 통하여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

정진섭 인천지부장 겸 새마을 금고 이사장은 “새마을 금고는 지부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사료공동구매 등으로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부회원들은 세미나 및 단합대회를 통해 양돈기술 습득과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